

예 배 WORSHIP

September 16, 2018 11:30 am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최선의 주일예배

하나님 앞으로	시역과 행사 안내
	찬양과 경배 (찬양팀과 함께)
	예배기도 / 죄내권 집사 주님 가르치신 기도
말씀과 결단	성경말씀 요한복음 8:31-3 예수님은 우리를 자유롭게 만드십니다! 말씀선포 / 김성배 목사
	결단의 찬송 268장 /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통일찬송가 202장)
	헌신과 나눔 봉 헌 / 김훈테 집사, 오정은 집사 *봉헌찬송 / 나의 생명 드리니 - 4절
삶과 세상으로	*주께 가오니
	*축 도 / 김성배 목사

(*표는 모두 읽어 셉니다)

예배시간 10분전 휴대전화 점검과 목상으로 준비합니다.
진정한 예배는 교회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시작 됩니다.

금요찬양예배

8:00 pm

기도 : 구 민 집사

말씀 : 김성배 목사 / 열왕기상 22:41-50 (22:1-4, 29-33)

오므리 왕조와 평화조약을 맺고 치른 값

목상에세이

신신하신 만왕의 왕, 우리 아버지!
주 여호와와는 말씀대로 이루시는 참 신이십니다.
믿음의 자녀가 입을 열어 아뢰 될 때, 한 마디도 땅에 떨어지게 마옵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소서.

보시기에 좋았던 이 땅을 죄악으로 물들인 인생을 불쌍히 여기셔서
지금도 아버지의 음성을 들려 주시는데도
귀막고, 입닫고, 생각 없이
망령된 심령으로 끌려가는 연약한 저희를 건져 주소서

아버지의 연약의 말씀이 저희를 통하여 열매 맺게 하옵시고
믿음이 결국은 영원 구원임을 다시금 되새기게 도와 주시기를 간구하나이다.
우리가 아버지가 인치신 영혼, 아버지의 것이라 확신하신 귀한 존재임을 기억하며
주님 나라의 자녀답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도록 도와주소서.
그리하여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는 불쌍한 이들에게
연약의 말씀이 심어지도록 우리 입을 열어 증거하게 하여 주소서.

나만 바라 볼 때는 희망과 소망이 희미해지오니
오로지 믿음의 주,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며 전진하게 인도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울려 퍼지는 곳곳에 예수님만 기다리며 사는 믿음의 세대로
축복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 고순제 전도사 -



교회를 섬기는 분들

LEAD PASTOR 김성배 목사
WORSHIP LEADER 박진성 집사
EM PASTOR
CHILDREN'S MINISTER 고순제 전도사
YOUTH MINISTER SAGAR 전도사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마태복음 16:19)

네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요한복음 4:23-24]

“우리가 꿈꾸는 예배 공동체” (1)

영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라!

예배를 강조하는 이유는 예배야말로 교회 사역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혹시 이런 의문이 들지도 모른다. 흔히 도덕 중심적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인데, “예배만 드리면 뭐해? 크리스천으로서의 삶을 살아야지! 예배만 하고 다른 것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지?”

그런데 이런 의문에 대하여 전혀 걱정하지 마라. 예배만 드리고 다른 것을 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이다. 예배를 드린 사람은 매우 적극적으로 활동한다. 이것이 예배의 의미다. 문제라면 단지 무의미한 예배를 드리거나 예배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한 자들이 예배를 드리고 자신의 의무를 다한 것처럼 착각하는 것이다.

교회에서 일어나는 가장 큰 문제는 기도하지 않고 예배도 건성으로 드리는 사람들이 교회 문제를 놓고 알가알부하거나 투표한다는 것이다. 많은 교회 가운데서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들은 따로 있고 의사를 결정하는 사람이 따로 있다는 것이다.

참된 교회는 예배하는 자들에 의하여 움직여져야 한다.

장로도, 권사도, 목사도 예배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의해 의사 결정이 이루어진다면 어떻게 영적인 교회가 될 수 있겠는가? 사도행전의 역사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뜨겁게 예배하며 기도할 때 시작되었다. 사도 바울의 역사는 감옥에서도 끊임없이 예배하며 찬양할 때 일어났다.

본문은 예배에 대하여 아주 명확하게 말씀한다.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유도 명확하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영시시기” 때문이다. 영이신 하나님은 건물인 교회에만 거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교회의 예배는 교회 중심적인 예배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예배를 꿈꾸는 것이다. 영이신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는 교회 공동체 중심적인 예배를 넘어선다. 예배는 우리의 익숙한 형식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매일 삶에서 역동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난다.

- 김병삼 목사 -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환영과 교제의 식탁 섬김의 교회를 방문하신 분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배후 주일 만찬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성도의 교제에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사역 / 행사

- ▶ 9월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의 능력을 받기 위한 찬양과 기도의 달입니다.
- ▶ 삶과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쉬지 않고 기도합니다. 찬양으로 치유받고 기도로 천국의 통성함을 누립니다

1. 금주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는 사명을 감당하는 주간입니다. 말씀과 묵상, 기도와 순종, 나눔과 격려를 통해,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성도가 됩시다.
2. 친교와 영적성장을 이루고 복음의 증인이 되는 Cell 모임(Oikos 사역)을 오늘 오후 교회에서 가집니다. 기도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3. 하나님의 은혜로 2018년 가을 수련회를 마친 후, 17주간 성경 1독운동이 Oikos 사역으로 계속 진행 중입니다. 서로 격려하며 점검해 줍시다!
4. 예수님을 만나야 할 이웃, 친구와 가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세상과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며 삶으로 복음을 나눕시다.
5. 3주년 감사찬양집회와 준비를 위한 Relay 기도가 계속됩니다. 초청할 이웃의 명단을 예배위원회에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주의 합심기도

- 3주년 감사찬양 예배를 감사와 기쁨으로 은혜롭게 마치도록
- 말씀과 함께하며 섬기는 행복한 공동체로 성장하도록
- 자아와 개성을 내려 놓고 성령님 안에서 하나되도록

기도제목

1. 교회와 성도를 섬기는 목회자들의 강건함과 사역을 위해
2. 박진성 집사의 완전한 회복과 최윤정 학생(눈)의 빠른 치유를 위해
3.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정홍렬 목사가 건강(신장기능)을 유지하도록
4. 교우들의 사업이 믿음 안에 청지기의 사명으로 운영, 발전하도록
5. 좋은 English Ministry 사역자를 하나님께서 보내 주시도록
6. 주중 성경연구(소선지서/에스라/느헤미야/부흥강의들)를 위해

예배 섬김이

주일에배기도	9/16	9/23	9/30	10/7
	최내권집사	구은강집사	김훈태집사	최선운집사
금요일배기도	9/21	9/28	10/5	10/12
	구민집사	김태성집사	유동숙집사	유덕하집사
주일헌금위원	9/16	9/23	9/30	10/7
	김훈태집사/오정은집사		홍현근집사/구은강집사	
주일안내위원	9월			10월
	정줄리권사			구민집사

말씀노트 Sermon Note

〈지난주일 말씀요약〉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십니다!** / 요한복음 6:26-40

빵을 먹고 배부른 이유로 찾아온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나는 생명의 떡이라.”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고 말씀하신다. 어떻게 하나님의 일들을 할 수 있느냐고 되묻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이 세상에 보내신 이, 즉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답하신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만이 참여할 수 있는 성만찬은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믿음의 고백이다. 예수님의 살과 피 값을 하며 걸맞는 삶을 살 수 있는 곳이 예수님의 몸이 되는 교회이다. 교회의 지체인 성도는 교회의 부족한 부분을 자신의 몸으로 채우고 막으며, 밥 값을 하며 세상에 예수님을 전해야 한다.

예수님은 우리를 자유롭게 만드십니다! / 요한복음 8:31-38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유대인들은 어떻게 반응하였나요?

그들은 왜 자신들이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다고 했을까요?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진리는 무엇입니까?

참 자유를 누리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심을 믿고 참 자유를 누리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자유롭게 만드십니다! / 요한복음 8:31-38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만들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살펴 봅니다. 이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종이 된 적이 없기 때문에 자유롭게 된다는 데 항변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생각할 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반응입니다. 실은 그들은 오랫동안 종살이를 했습니다. 이집트에서 400년 넘게, 그리고 600년 동안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그리고 로마 제국의 치하에서 살아왔습니다. 이 기간을 다 합하면 자그마치 천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다고 합니다. 자유를 잃고 있다는 사실조차 망각했습니다. 자유를 잃고도 그 사실조차 깨닫지 못하는 것은 비단 유대인만이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 모든 인류는 자유를 잃어 버렸습니다. 어떤 자유를 잃어버렸습니까? 죄를 짓지 않을 자유입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죄가 우리 안에 일단 들어오면, 우리의 주인 노릇을 합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죄를 짓게 됩니다. 한두 번이 아니라 끈질기게 계속됩니다. 결국은 죄가 우리를 다스리고 부리게 됩니다.

이렇게 죄에게 종 노릇하며 사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우리를 죄의 문제로부터 해방시켜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이라는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물론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죄를 짓지 않고 사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죄의 잔재가 아직까지 정도 안에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죄의 문제는 계속하여 우리를 괴롭힐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하여 죄와 싸워야 합니다. 그러나 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미 이겨 놓으신 싸움을 싸우며, 우리 자신이 성장하며 성숙하게 됩니다.

이 진리 위해 우리가 참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할 일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우리가 죄의 종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예수님이 주시는 자유를 갈망할 수 있습니다. 둘째,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후에는 자신이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참 자유를 주셨다는 사실을 의심하지 말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가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습니다. 혹시라도 우리 안에 아직까지 죄를 향한 노예 근성이 남아 있다면, 성령님의 능력으로 이기고 극복해야 합니다. 분명 자유를 얻었는데, 종처럼 살면 안 됩니다. 진리가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심을 굳게 믿고, 강하고 담대하게 죄를 대적하여 승리해야 합니다

말씀적용과 실천노트

Application Note



섬김의 교회

church of servants

J E S S U S L O V E S Y O U

섬김의 교회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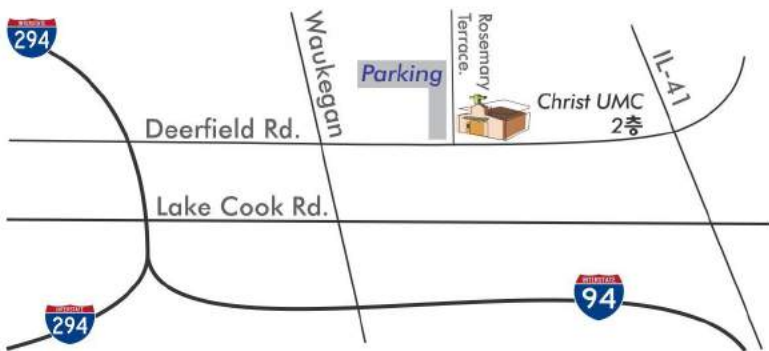
- ▶ 최고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 ▶ 하나님의 사랑에 빛진 교회의 사람으로, 섬김을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 ▶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향해 쉬지않고 성장합니다.
- ▶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 행복한 교회와 가정, 개인의 생활을 소망합니다.
- ▶ 하나님의 나라를 모든 사역과 삶의 영역에서 세웁니다.

예배 및 모임 안내

- 주일예배 / LORD'S DAY WORSHIP : SUNDAY 11:30 AM
- 주일학교 / SUNDAY SCHOOL : SUNDAY 11:00 AM
- 생명의 삶 나눔 / QT SHARING : SUNDAY 10:30 AM
- 금요찬양예배 / FRIDAY SERVICES : FRIDAY 8:00 PM
- 새벽경건회 / EARLY MORNING DEVOTIONS : TUESDAY~FRIDAY 5:40 AM
SATURDAY 6:00 AM
- WOW / WOMEN OF WORSHIP : SATURDAY 11:00 AM
- 성경공부 / BIBLE STUDIES : SUNDAY 1:30 PM
WEDNESDAY 7:00 PM
- 일대일 제자 훈련 / DISCIPLESHIP CLASSES : WEDNESDAY 7:30 PM

교회위치 (Our Location)

600 Deerfield Rd., Deerfield, IL 60015



www.churchofservant.com

September 16, 2018

847-691-7846 / www.churchofservant.com
600 Deerfield Road, Deerfield, Illinois 60015

섬기는 목회자 : 김성배 목사

친유, 회복, 나눔

찬양과 기도의 달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는 주간

꿈이 있는 교회
섬김이 있는 교회
어제보다 오늘 더 행복한 교회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하여 본을 보였노라.
요한복음 13:14-15



말씀이 들리면 콧물,
민어지면 은혜,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예 배 WORSHIP

September 16, 2018 11:30 am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최선의 주일예배

하나님 앞으로	시역과 행사 안내 찬양과 경배 (찬양팀과 함께) 예배기도 / 죄내권 집사 주님 가르치신 기도
말씀과 결단	성경말씀 요한복음 8:31-3 예수님은 우리를 자유롭게 만드십니다! 말씀선포 / 김성배 목사 결단의 찬송 268장 /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통일찬송가 202장)
헌신과 나눔	봉 헌 / 김훈테 집사, 오정은 집사 * 봉헌찬송 / 나의 생명 드리니 - 4절
삶과 세상으로	* 주께 가오니 * 축 도 / 김성배 목사

(*표는 모두 읽어 셉니다)

예배시간 10분전 휴대전화 점검과 목상으로 준비합니다.
진정한 예배는 교회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시작 됩니다.

금요찬양예배

8:00 pm

기도 : 구 민 집사

말씀 : 김성배 목사 / 열왕기상 22:41-50 (22:1-4, 29-33)

오므리 왕조와 평화조약을 맺고 치른 값

목상에세이

신신하신 만왕의 왕, 우리 아버지!
주 여호와와는 말씀대로 이루시는 참 신이십니다.
믿음의 자녀가 입을 열어 아뢰 될 때, 한 마디도 땅에 떨어지게 마옵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소서.

보시기에 좋았던 이 땅을 죄악으로 물들인 인생을 불쌍히 여기셔서
지금도 아버지의 음성을 들려 주시는데도
귀막고, 입닫고, 생각 없이
망령된 심령으로 끌려가는 연약한 저희를 건져 주소서

아버지의 연약의 말씀이 저희를 통하여 열매 맺게 하옵시고
믿음이 결국은 영원 구원임을 다시금 되새기게 도와 주시기를 간구하나이다.
우리가 아버지가 인치신 영혼, 아버지의 것이라 확신하신 귀한 존재임을 기억하며
주님 나라의 자녀답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도록 도와주소서.
그리하여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는 불쌍한 이들에게
연약의 말씀이 심어지도록 우리 입을 열어 증거하게 하여 주소서.

나만 바라 볼 때는 희망과 소망이 희미해지오니
오로지 믿음의 주,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며 전진하게 인도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울려 퍼지는 곳곳에 예수님만 기다리며 사는 믿음의 세대로
축복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 고순제 전도사 -



교회를 섬기는 분들

LEAD PASTOR 김성배 목사
WORSHIP LEADER 박진성 집사
EM PASTOR
CHILDREN'S MINISTER 고순제 전도사
YOUTH MINISTER SAGAR 전도사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마태복음 16:19)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마태복음 16:19)

교회와사역

[요한복음 4:23-24]

“우리가 꿈꾸는 예배 공동체” (1)

영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라!

예배를 강조하는 이유는 예배야말로 교회 사역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혹시 이런 의문이 들지도 모른다.

흔히 도덕 중심적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인데, “예배만 드리면 뭐해? 크리스천으로서의 삶을 살아야지! 예배만 하고 다른 것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지?”

그런데 이런 의문에 대하여 전혀 걱정하지 마라. 예배만 드리고 다른 것을 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이다.

예배를 드린 사람은 매우 적극적으로 활동한다. 이것이 예배의 의미다. 문제라면 단지 무의미한 예배를 드리거나 예배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한 자들이 예배를 드리고 자신의 의무를 다한 것처럼 착각하는 것이다.

교회에서 일어나는 가장 큰 문제는 기도하지 않고 예배도 건성으로 드리는 사람들이 교회 문제를 놓고 왈가왈부하거나 투표한다는 것이다. 많은 교회 가운데서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들은 따로 있고 의사를 결정하는 사람이 따로 있다는 것이다.

참된 교회는 예배하는 자들에 의하여 움직여져야 한다.

장로도, 권사도, 목사도 예배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의해 의사 결정이 이루어진다면 어떻게 영적인 교회가 될 수 있겠는가? 사도행전의 역사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뜨겁게 예배하며 기도할 때 시작되었다. 사도 바울의 역사는 감옥에서도 끊임없이 예배하며 찬양할 때 일어났다.

본문은 예배에 대하여 아주 명확하게 말씀한다.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유도 명확하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영시시기” 때문이다. 영이신 하나님은 건물인 교회에만 거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교회의 예배는 교회 중심적인 예배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예배를 꿈꾸는 것이다. 영이신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는 교회 공동체 중심적인 예배를 넘어서다. 예배는 우리의 익숙한 형식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매일 삶에서 역동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난다.

- 김병삼 목사 -

“하나님의 나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환영과 교제의 식탁 섬김의 교회를 방문하신 분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배후 주일 만찬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성도의 교제에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사역 / 행사

▶ 9월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의 능력을 받기 위한 찬양과 기도의 달입니다.
▶ 삶과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쉬지 않고 기도합니다. 찬양으로 치유받고 기도로 천국의 풍성한 삶을 누립니다

1. 금주는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는 사명을 감당하는 주간입니다. 말씀과 묵상, 기도와 순종, 나눔과 격려를 통해,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성도가 됩시다.
2. 친교와 영적성장을 이루고 복음의 증인이 되는 Cell 모임(Oikos 사역)을 오늘 오후 교회에서 가집니다. 기도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3. 하나님의 은혜로 2018년 가을 수련회를 마친 후, 17주간 성경 1독운동이 Oikos 사역으로 계속 진행 중입니다. 서로 격려하며 점진해 줍시다!
4. 예수님을 만나야 할 이웃, 친구와 가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세상과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며 삶으로 복음을 나눕시다.
5. 3주년 감사찬양집회와 준비를 위한 Relay 기도가 계속됩니다. 초청할 이웃의 명단을 예배위원회에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주의 합심기도

- 3주년 감사찬양 예배를 감사와 기쁨으로 은혜롭게 마쳐도록
- 말씀과 함께하며 섬기는 행복한 공동체로 성장하도록
- 자아와 개성을 내려 놓고 성령님 안에서 하나되도록

기도제목

1. 교회와 성도를 섬기는 목회자들의 강건함과 사역을 위해
2. 박진성 집사의 완전한 회복과 최윤정 학생(는)의 빠른 치유를 위해
3.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정홍렬 목사가 건강(신장기능)을 유지하도록
4. 교우들의 사업이 믿음 안에 청지기의 사명으로 운영, 발전하도록
5. 좋은 English Ministry 사역자를 하나님께서 보내 주시도록
6. 주중 성경연구(소선지서/에스라/느헤미야/부흥강의들)를 위해

예배 섬김 이	주일예배기도	9/16	9/23	9/30	10/7
		최내권집사	구은강집사	김훈태집사	최선운집사
예배 섬김 이	금요일예배기도	9/21	9/28	10/5	10/12
		구민집사	김태성집사	유동숙집사	유덕하집사
예배 섬김 이	주일헌금위원	9/16	9/23	9/30	10/7
		김훈태집사/오정은집사	홍현근집사/구은강집사		
예배 섬김 이	주일안내위원	9월			10월
		정줄리권사			구민집사

말씀노트 Sermon Note

(지난주일 말씀요약)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십니다!** / 요한복음 6:26-40

빵을 먹고 배부른 이유로 찾아온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나는 생명의 떡이라.”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고 말씀하신다. 어떻게 하나님의 일들을 할 수 있느냐고 되묻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이 세상에 보내신 이, 즉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답하신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만이 참여할 수 있는 성만찬은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믿음의 고백이다. 예수님의 살과 피 값을 하며 걸맞은 삶을 살 수 있는 곳이 예수님의 몸이 되는 교회이다. 교회의 지체인 성도는 교회의 부족한 부분을 자신의 몸으로 채우고 막으며, 밥 값을 하며 세상에 예수님을 전해야 한다.

예수님은 우리를 자유롭게 만드십니다! / 요한복음 8:31-38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유대인들은 어떻게 반응하였나요?

그들은 왜 자신들이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다고 했을까요?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진리는 무엇입니까?

참 자유를 누리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심을 믿고 참 자유를 누리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자유롭게 만드십니다! / 요한복음 8:31-38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만들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살펴 봅니다. 이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종이 된 적이 없기 때문에 자유롭게 된다는 데 항변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생각할 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반응입니다. 실은 그들은 오랫동안 종살이를 했습니다. 이집트에서 400년 넘게, 그리고 600년 동안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그리고 로마 제국의 치하에서 살아왔습니다. 이 기간을 다 합하면 자그마치 천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다고 합니다. 자유를 잃고 있다는 사실조차 망각했습니다. 자유를 잃고도 그 사실조차 깨닫지 못하는 것은 비단 유대인만이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 모든 인류는 자유를 잃어 버렸습니다. 어떤 자유를 잃어버렸습니까? 죄를 짓지 않을 자유입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죄가 우리 안에 일단 들어오면, 우리의 주인 노릇을 합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죄를 짓게 됩니다. 한두 번이 아니라 끈질기게 계속됩니다. 결국은 죄가 우리를 다스리고 부리게 됩니다.

이렇게 죄에게 종 노릇하며 사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우리를 죄의 문제로부터 해방시켜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이라는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물론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죄를 짓지 않고 사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죄의 잔재가 아직까지 성도 안에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죄의 문제는 계속하여 우리를 괴롭힐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하여 죄와 싸워야 합니다. 그러나 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미 이겨 놓으신 싸움을 싸우며, 우리 자신이 성장하며 성숙하게 됩니다.

이 진리 위해 우리가 참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할 일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우리가 죄의 종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예수님이 주시는 자유를 갈망할 수 있습니다. 둘째,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후에는 자신이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참 자유를 주셨다는 사실을 의심하지 말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가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습니다. 혹시라도 우리 안에 아직까지 죄를 향한 노예 근성이 남아 있다면, 성령님의 능력으로 이기고 극복해야 합니다. 분명 자유를 얻었는데, 종처럼 살면 안 됩니다. 진리가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심을 굳게 믿고, 강하고 담대하게 죄를 대적하여 승리해야 합니다.

말씀적용과 실천노트

Application Note